

독립영화 마니아들 광주로 오라~

27~30일 '광주독립영화제' 광주극장·독립영화관서 진행 지역 영화인들 작품 대거 출품 '흔한 이름' 등 장·단편 28편

“영화로운 불빛으로 켜텐을!”
광주독립영화협회(대표 오태승)는 오는 27~30일 '제13회 광주독립영화제'를 광주극장,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영화로운 불빛으로 켜텐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며 국내외 장·단편 영화 28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개막작과 폐막작 등 대부분이 광주 영화인들의 작품으로 채워진다.

개막작은 단편 '흔한 이름'을 장편화한 송원재 감독의 '내 이름'이다. 고군분투하며 살아간던 수급자 민서가 자신만의 이름과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27일 오후 7시 30분 광주극장에서 무료 상영)

작년에 이어 '백백 내셔널데이 섹션'도 진행한다. 영화 '똥'으로 세계 영화제의 주목을 받고 있는 드니 빌뇌브 감독의 '그을린 사랑'을 만날 수 있다. '그을린 사랑'은 내전의 비극과 어머니의 모국을 찾아가는 캐나다 쌍둥이들의 아픔을 초점화한다. 아카데미 외국어상 후보에 올라 국제적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오후 1시 상영한다.

이어 오후 7시에는 '5월 이야기'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무료 상영한다. 5·18 꼬마장수 조천호 씨를 촬영했던 프랑수아 로송, 페트리 소벨의 일화를 43년 만에 밝혀낸 '1980, 로송과 소벨', 1984년 광주와 야구를 조명한 '디 데이, 프라이데이'를 볼 수 있다.

'메이드 인 광주 섹션'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광주 출신 감독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메이드 인 광주 1·2' (각각 28일 오후 4시, 29일 오후 6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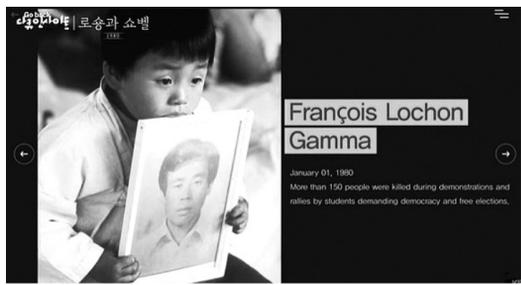
는 '혼자', '수상한 교실 3: 엔드게임'을 비롯해 '가끔 미치도록', '올리브', '가족의 이름으로' 등을 상영한다. 학교와 학생 이야기를 다루는 '메이드 인 광주: Next 10'도 29일(오전 11시) 이어진다.

같은 날(오후 2시 30분) 펼쳐지는 '지역 교류전'도 있다. 영화 '데뷔의 순간', '목달미', '모두가 헤어지는 하루', '후식과 나의 남자 친구'를 총 89분간 상영한다.

광주 신예 감독들의 데뷔작을 소개하는 '광주 신진 감독전'도 있다. 지난 1월 '광주 신작 공모전'을 거쳐 선정된 작품들로 'ZIP!', '픽킹 피프 리포트', '백일몽', '첫 출동'이 그것.

아울러 지난달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 부문 '양양'을 연출한 '양주연 감독전'도 진행한다. 양 감독이 2013년부터 창작한 '양동의 그림자'를 최초 극장 상영하며 '내일의 노래', '육상자국', '40'도 볼 수 있다.

폐막작은 김경자 감독의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 광주 5·18민중항쟁의 마지막 수배자였던 '윤한봉' 선생의 미국 망명생활과 저항 정신을 초점화한 작품이다. 지난달 19일 인천에서 열린 '제12회 디아스포라영화제' 장편 초청작으로 상영되기도 했다. 부대 행사로 '시나리오 피칭', 광주 영화인들의 네트워킹 행사 '광주 영화인의 밤'도 펼쳐진다.



다큐 인사이트-1980, 로송과 소벨 한 장면. <유투브 캡처>



제13회 광주독립영화제 개막작 '내 이름' 스틸컷.

광주독립영화제 집행위 이연수 사무국장은 "이번 영화제는 국내 우수 장, 단편영화를 감상하며 광주 영화계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방향성 등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메이드인 광주 1·2 행사와 5월 이야기, 광주신진감독·양주연감독전 및 개·폐막작 상영 시에는 관객과의 만남 행사(GV)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관람료 5000원. (광주독립영화관 또는 디트릭스 예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의 시인을 만나다'

'사이편' 문학 토크 29일 전일빌딩245...이재연·박노식 시인 초청

시인과의 대화는 일상과는 다른 차원의 인식과 깨달음을 준다. 저마다 삶과 세상에 대한 시각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언어로 시적 세계를 추구해가는 두 시인을 만날 수 있는 토크가 마련됐다.

계간 '사이편'이 제17회 사이편 문학 토크를 오는 29일(오후 2시 30분) 전일빌딩 4층 중회의실에서 연다. '광주의 시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이재연 시인과 박노식 시인을 초청 문학 토크를 갖는 것.

장흥 출신 이재연 시인은 2012년 제1회 오장환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저력이 있는 문인이다. 묵묵히 그리고 천천히 자신만의 시어와 감성으로 불가해한 세계의 이면을 깊이있게 형상화 해오고 있다.

시인은 최근 시집 '화요일이었고 비는 오지 않았다' (파란)를 펴내고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시집은 화자의 목소리가 일상성과 구체적인 현실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며 "내가 바라보고 느끼는 '세계'가 나에게 그렇게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고 나 자신에게도 전환이 필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집 '가슴이 먼저 울어버릴 때' (삼창)를 펴낸 광주 출신 박노식 시인은 시를 쓰기 위해 화순으로 들어가 살고 있다. 작품집을 관통하는 정조는 '결핍'에서 파생된 '실움'이다.

지난 3월 시집 발간과 관련 인터뷰에서 그는 "일



이재연 시인 박노식 시인

반 독자나 지인, 시인들이 이번 시집에 대해 결핍을 많이 이야기 한다"며 "유년 시절 부모님 생업 때문에 떨어져 외조모와 살았던 경험 등이 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두 시인 토크 대담은 김완 시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시와시학'으로 등단해 2018년 송수권 시문학상 남도시인상을 수상한 시인은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의사, 시인, 여행가 등 다양한 직업의 경계를 오가며 사람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시어로 구현하고 있다.

대담자로 나서는 김완 시인은 "이재연 시인과 박노식 시인의 문학과 삶, 그리고 일상에 드러워진 시적 상황과 시적 발현 등 창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직장인 음악 열정, 클래식 선율을 타고

내셔널솔리스텐앙상블, 21일 서빛마루문예회관서 연주회



이비인후과 과장, 외과·산부인과 원장, 농협경제지주 지주회사 근무자 등 '직업인'들이 모여 실내악 연주회를 연다.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내셔널솔리스텐앙상블(단장 김현경)이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연주회 '음악과 동행하다'를 펼친다. 오는 9월 창단 예정인 'N심포니 오케스트라(이하 N심포니-단장 최은서)'를 위한 공연이다.

공연은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2번 C단조 Op. 66'으로 시작한다. 조선대대대 관현악반 출신으로 ECMO 앙상블 회원인 정진철(바이올린), 최은서(첼로)가 연주한다. 이들은 각각 성기롤로병원 이비인후과, 광주웰스유외과 원장 등 본업이 있다.

이어 드보르자크 '피아노 카르넬 2번 E플랫장조, Op.87'은 현재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근무 중인 김유정(비올라)이 협연한다. 클라리넷은 백종철(목포미즈아이병원 산부인과원장)이 맡는다. 두 사람은 광주 베누스오케스트라, 광주 기네스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지역 오케스트라와 협연 경력 있다. 피아노 연주에 목포대, 국민대 대학원(반주 전공)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공기열.

한편 N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현재 창단 멤버도 모집 중이다. 전공자 및 아마추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으며 서구 상무대로(1077.5층)에서 연습 일정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70% 이상 소화가 가능해야 한다. (회비 월 10만원) 전석 초대.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음악으로 듣는 '음악의 미래'

ACC재단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통해 앨범·문화상품 출시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는 한국 등 아시아 음악을 발굴 재해석해 앨범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시절의 음악을 모티브로 동시대적 사운드로 발현한다는 데 의미가 깊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최근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를 통해 제작한 앨범과 관련 문화상품 5종을 출시해 눈길을 끈다.

앨범의 제목은 '예언'으로, 지나간 시간을 토대로 다가올 미래를 예상한다는 뜻을 포괄하고 있다. 앨범 제작은 DJ 소울스케이프(박민준)가 이끄는 경음악단 'STUDIO 360'이 작업했다.

DJ 소울스케이프가 프로듀서 겸 작곡과 편곡을 맡았으며 김오키(색소폰), 윤석철(피아노-키보

드), 까데호(기타-베이스-드럼), 마더바이브(비브라폰), 관돌(퍼커션) 등 실력과 연주진이 함께 했다.

앨범 타이틀에는 '밀양아리랑', '새타령', '자진 모리', '한오백년', '바람', '예언', '일곱 번의 계절' 등이 수록돼 있다. 전반부 곡은 민요를 기반으로 한 음악과 전통 장단을 재구성한 음악이며, 후반부 곡은 가요와 재즈 등에서 영향을 받은 창작곡이다.

권성아 문화사업개발팀장은 "앨범 타이틀 '예언'은 60~70년대 '정통' 재즈 음반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전통 음악과 재즈, 컨템포러리 음악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제작에 참여한 이들은 귀에 익



'예언'. <ACC재단 제공>

숙한 멜로디를 다른 리듬으로 해석하고, 오리지널 트랙에서는 서정적인 감성을 투영했다"고 전했다.

ACC재단은 프로젝트 앨범 발매와 맞물려 서브컬처 브랜드 '발랑샤'와 함께 티셔츠, 모자, 키링 등 문화상품도 출시했다.

한편 프로젝트 앨범 '예언' 음원은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날 수 있으며, 연계 상품은 ACC 문화상품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1 인종기간 | 2020.10.19 ~ 2024.10.18

동행요양병원 위치도

재활치료실 운영

중증재활 / 인지재활 수술후 재활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한의 집중치료

침, 뜸, 부항, 약침, 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동행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광주역앞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입원문의
062) **720-2000**